

송년특집

# '고난의 연대'에 꽃핀 강인한 책들

올해 나온 책들 역시 'IMF'라는  
악령과 악전고투를 벌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다룬 책들이 성시를 이뤘고,  
시대정신의 화신이던 영웅이 부활해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강인한 정신을 요청했다. 험난한 세상을 밝혀주는  
일상의 행복에 대한 관심도 강세를 보였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고난의 연대'로 기록될 것이다. 출판계는 IMF라는 악령과 악전고투를 벌여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덮친 유통망 마비로 상시화된 위기의식에 내몰렸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더욱더 진지한 내면성찰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사회 화두가 돼버린 경제위기에 대해 백화제방의 진단과 처방을 다룬 책들이 성시를 이루었다. 어려울수록 가치를 더하는 고전도 암흑기를 밝혔다. 시대정신의 화신이었던 영웅들이 부활해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강인한 정신을 요청했다. 험난한 세상살이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일상의 행복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평생직장 개념이 파괴되면서 창업관련서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 경제위기의 진단과 처방

책은 한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IMF라

는 난적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않을 수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 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폴빛)·《한국경제 죽어야 산다》(백산서당)·《한국보고서》(매일경제신문사) 등이 쏟아져나와 경제주체들의 '위기 불감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구조적 요인을 파헤쳤다.

우리사회의 경제위기가 총체적인 부패구조와 허황된 포만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뼈저린 각성과 함께 '변화'와 '개혁'이 위기극복의 양날개로 자리잡았다. 이에 맞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제언이 제출됐다. 《국가개조 35제》(21세기북스)·《새로운 세기를 위하여》(한겨레신문사)·《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푸른숲) 등은 사회체제 시스템의 개혁, 남북의 공생, 참여민주주의 등 현실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뼈저린 각성을 주문했다.



우리시대의  
화두가 돼버린  
경제파국은 책에서도  
어실히 반영됐다.

국내 경제위기가 일본·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번지면서 일국적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공황'의 시각에서 경제위기를 관찰한 책들도 등장해 주목을 끌었다. 《대공황의 습격》(모색)·《예고된 공황》(바다출판사)·《대공황의 세계》(부키) 등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패권에 장악된 세계경제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위기경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무한정한 생산과 이윤추구가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 경고하기도 했다.

무자비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는 영웅을 갈망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왜소한 개인으로 추락한 현대인들은 영웅에 의탁함으로써 자신의 열패감을 상쇄하고자 했다. 지난해 《람세스》(문학동네)로 촉발된 영웅에 대한 향수가 지속되면서 신화가 사라져 버린 시대의 공백을 메꿨다. 《나폴레옹》(문학동네)·《칭기즈칸》(중앙M&B/현실과미래) 등은 유혈 속에 핀 '악의 꽃'이지만 때로는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으로 미화됨으로써 나약한 현대인의 보상심리를 자극했다. 제갈량과 조조 등 지략과 용맹으로 중원을 평정했던 중국의 영웅도 부활했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근대화의 영웅으로 박정희가 급부상했다. 극우적 언론의 부추김이 한몫했고 이에 편승한 책들은 '박정희 신드롬'의 주연과 조연을 맡았다. 《청년 박정희》(리브로)·《인간의 길》(살림)·《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조선일보사) 등 박정희 향수를 겨냥한 책부터 박정희 시대를 비판적

으로 접근한 《박정희를 넘어서》(푸른숲)까지 박정희 특수를 이루었다. 연말엔 '박정희 숭배'를 유포하는 '우익'들에 직격탄을 날린 진중권의 《네 무덤에 침을 뱉어!》(개마고원)가 나와 박정희 망령을 부추기는 책들에 썩기를 박았다. 절망의 정치와 희망의 부재가 부른 한국적 현상으로 기록될 만하다.

### 일상의 행복, 가정의 소중함

어려운 시대일수록 일상의 행복에 기대거나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떠올린다. 지난해 서점가를 평정했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이레)에 이어 《마음을 열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맑은소리)·《신비한 영혼을 위한 핫초콜릿》(동방미디어) 등 잇고 살았던 작은 행복에 눈 돌리게 하는 책들이 여전히 비소설 서가를 채웠다.

또한 《가정행진》(규장)·《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신실화사) 등 가정의 힘을 일깨운 책,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청산에 살리라》(현대문학) 등 무소유의 철학과 탈문명적 메시지를 띄우는 책들도 눈에 띄었다. 이와 함께 인기 연예인들의 자서전·에세이도 붐을 이뤘다. 엄앵란·최진실·전원주 등이 펴낸 책들은 스타들의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춰냄으로써 대중들의 엿보기 심리에 호소했다.

정부의 '햇볕정책'과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범을 계기로 통일과 금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를 반영한 북한과 통일관련서, 금강산 관련서들이 러시를 이뤘

다. 《북한의 문화유적 순례》(백산)·《나의 북한문화유산 답사기》·《북한 문화유적 답사기》(중앙M&B) 등 북한산하의 답사기부터 《금강산》(학고재)·《금강산 이야기》(문원북)·《금강산 유기》(실천문학사) 등 금강산 기행기·안내서까지 다채로왔다.

기업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들이 거리에 넘쳐나면서 실용서에서는 창업관련서가 단연 압도적이었다. 올해 출간된 종수만 해도 1천종을 상회했다. 창업입문서·재테크론·소호사업·벤처사업 등 주로 조직사회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이 소규모·소자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들을 담았다. 각 경제주체들의 창의성이 존중받는 시대에 이르렀음을 예감케 했다.

인문학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글세대를 위한 고전의 정전화 작업이 박차를 가했다. 환율위기에 따라 저작권 계약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엇보다 암흑기를 밝히는 고전의 가치가 재평가됐다. 민음사의 《세계문학전집》과 홍익출판사의 동양고전 <지혜의 샘 총서>가 각각 100권과 50권을 목표로 고전번역의 장도를 시작했다. 평민사에서는 12년 만에 <한국의 한시> 시리즈 40권을, 열린책들은 《프로이트 전집》 20권을 완간했다. <한울-시앙스포 총서>·<시공 로고스 총서>·<시공 아트 시리즈> 등 대형 시리즈 및 총서출간도 새롭게 시작되었다.

역사읽기의 대중화도 그 폭과 깊이를 더했다. 특히 근세사의 르네상스기로 손꼽히는 영정조 시대에 대한 담구가 두드러졌다. 문화의 세기를 향한 민족적 자각이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한 영정조 시대를 복원시키는 동력이었다. 《영조와 정조의 나라》(푸른역사)·《진경시대》(돌베개)·《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효형출판) 등이 그 성과물이었다.

한편 《한국 역사 속의 한국전쟁》(청년사)·《사화로 보는 조선역사》(석필)·《조선시대 권신권력관계 연구》(서울대출판부) 등 전쟁과 반란, 사회, 군신관계 등의 주제사와 생활사·사상사 등 분류사로 접근한 역사읽기도 부쩍 늘었다. 역사학에 대한 독자의 기호가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반영되었다. 그밖에 《화담 서경덕》(일지사)·《정도전을 위한 변명》(푸른숲) 등 드라마틱한 역사인물을 통해 시대를 재조명한 작업도 활발했다.

#### 한상문학·지중해문학 새로 진입

고난과 실의에 찬 삶의 조건은 문학의 기를 틔운 토양이 된다. 그러나 의외로 위기에

대한 본격문학의 대응은 미약했다. 윤대녕·신경숙·은희경 등 90년대 문학의 스타들은 평년작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피로 얼룩진 5월 광주를 형상화한 임철우의 《봄날》(전5권)과 60년대의 거대한 벽화를 그린 이문열의 《변경》(전12권, 이상 문학과지성사)이 완간돼 원숙한 문학적 경지를 펼쳐보였다.

리얼리즘의 퇴조와 통신세대의 등장으로 새로운 문학장르가 개화될 조짐이 보였다. 《드래곤 라자》(황금가지)·《용의 신전》(자음과모음) 등으로 물꼬를 튼 '환상소설'이 그것. 억압적 교육현실에서 자기탐닉적 감수성을 키워온 신세대들에게 이들 작품은 상상세계에서 시련을 헤쳐나가는 매혹적인 탐험과정을 보여주었다.

해외문학에서는 지중해권역의 문학이 새롭게 소개되었다. 포르투갈의 국민작가 주제사마라구가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마라구의 《수도원의 비망록》(문학세계사), 《눈먼 자들의 도시》(해냄), 터키의 아흐멧 알타이 쓴 《위험한 동화》(좋은날),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민음사) 등도 번역돼 영미문학 중심의 편식경향을 완화시켰다.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해 신비화된 지식을 소설로 풀이한 책들도 눈에 띄었다. 세계의 종교와 문명을 소설로 풀이한 《테오의 여행》(동문선), 고대철학과 현대철학을 넘나들면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추적하는 《판타레이》(리브로), 정신분석학을 소설로 풀어쓴 《오이디푸스의 결혼》(끝리오) 등은 역사·철학·정신분석 등 난해한 학문을 대중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였다.

사회과학에서는 미래사회에 대한 탐색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정보사회', '지식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은 책들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요청했다. 탈냉전적 세계질서와 범세계적 자본주의화가 진행되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예견되면서 《정보화 사회의 이해》(나남출판)·《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문학과지성사) 등이 출간돼 한국적 정보화 사회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풀이했다.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이 농경사회, 산업사회, 글로벌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깊어지면서 지식혁명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제시되었다. 《지적자본》(세종서적)·《지식경영》(21세기북스) 등은 미래사회에서 개인이나 조직, 국가가 얼마나 많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느냐에 따라 명운이 갈린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 박천홍 기자

## ‘솔보’의 파안대소

‘솔보’는 간혹 주인 아저씨의 자전거를 뒤따라

한강 둔치의 풀숲을 신나게 달려 볼 때가 있습니다.

뜻뜻한 풀냄새며 흙냄새, 모두가 솔보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나게 달려 보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 저희 회사에서는

각종 학술 서적과 사전류를 비롯하여 아동 도서, 잡지, 사보, 자서전, 회고록, 개인문집, 학회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출판물의 편집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원고 집필에서 교정, 편집 디자인, 전산 조판, 필름 출력에 이르는 전공정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더욱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하고자 합니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